

# 東아시아 近代에서 “建築”의 變容 — 中 · 韓 · 日의 比較를 통하여 —

村松伸

(무라마츠 신, 日本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 助手)

번역 : 윤인석

## 1. 目的과 方法

러시아 일부를 포함한 유럽의 나라들이 아주 비슷한 전통건축문화를 계승하고, 최근 몇세기 동안에도 비슷한 길을 걸어 왔던 것과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의 나라들도 어떠한 질서를 가지면서 변화를 만들어 내 온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한국, 북한, 타이완, 홍콩·마카오, 몽고, 일본을 포함하는, 이른바 「중국문화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은 고사하고, 각국, 각지역의 건축역사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근대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 근대건축사연구는 이미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였고, 타이완이나 한국에서도 최근 10년간 종합적연구가 많이 나와 있다. 또, 중국에서도 5년 가량 전 부터 근대건축사연구가 시작되어, 적어도 이 세 나라의 근대건축에 관한 기초적연구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각국의 근대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보다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국가들의 건축역사에서 세부적인 것은 제쳐 놓고 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새로운 관점,

방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해서 서양건축문화와의 충돌로부터 1945년 일본의 무조건항복까지의 기간을 대상 시기로 하여 공통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 보고 싶다. 주된 축이 되는 것은, 건축활동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배경에서 공통점을 찾아 내고, 중국, 일본의 근대건축에 대해서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시대」에 대해서 건축의 대상, 교육, 기술, 표현들이 어떠한가, 간단하게 개관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근대건축이 걸어 온 발자취를 살펴 본 후, 한국의 근대건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 필자는 현재, 객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헌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리고 한국근대건축사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공부하는 단계이기 에 틀리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여기에 그 논지를 분명히 하여, 같은 학문을 하는 한국의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싶어 감히 펜을 들기로 하였다. 부디 관용으로 너그러이 보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中國近代에서 「建築」의 變容<sup>1)</sup>

## 1) 제1기 : 1842년-1895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문화권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서양문화와 접촉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된다.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1842년,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香港島를 분할하고, 上海, 廣州, 福州, 廈門, 寧波와 같은 다섯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북경에는 清朝政府가 존속하고 있었고, 이 시기, 서양건축문화의 이입은 租界라고 하는 「點」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건축활동을 맡았던 사람들은 「콜로니얼·엔지니어」, 「콜로니얼·아키텍트」라고 불리는 서양인건설기술자들과, 그들이 설계했던 건물을 실제로 시공했던 中國匠人들이었다.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개항했던 上海를 예로 들자면, 가장 초기에 세워진 洋館은, 마카오·香港으로부터 보내온 설계도와 서양인무역상인들이 그려준 간단한 스케치를 기본으로하여 중국인 匠인들이 세운 것이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서양인건축가는, 1849년부터 5년간 上海에서 활동했던 G. Strachan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뒤를 이어, T. W. Kingsmill, G. J. Morrison이라는 이름이 당시의 「거류지 안내」에서 눈에 띈다. 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직능은, 건축이라기보다는 租界, 居留地를 매립하고, 측량, 다리건설, 상하수도건설과 같은 일의 전반을 청부받았고, 그러다가 건축에도 손을 대게 되는 것이었지, 「건축」이 특별하게 맡겨진 것은 아니었다.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영국의 조지안양식을 기초로 하여, 건물 주위에 배란다가 둘러쳐지는 「배란다 식민지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채용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 조계·거류지에서 정착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부터 점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에서 업무를 부여받는 것이었다. 1874년에 개통한 滬滬鐵路건설을 위해서 런던으로부터 초빙된 Morrison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King-smill은 香港에서 왔고, 上海를 거점으로 하고 다른 조계나 거류지로 건너간 기술자들도 많았다.

한편, 중국인匠인들도, 서양건축문화유입에 함께 참여하여, 시공기술을 습득하였다. 앞에서 말하였던 上海에 등장한 최초의 서양인건축가 Strachan은 中國匠人들을 교육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1883년 출판된 上海의 풍물기 「淞南夢影錄」에는 上海조계건설 30년후, 洋式建築만을 다루는 「紅幫」이 중국건축을 취급하는 「本幫」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893년에 준공한, 고딕·리바이벌양식으로 지어진 두번째 上海稅關의 시공에는 楊斯盛이라는 장인이 관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장인들은, 조직되어진 교육기관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徒弟制度 밑에서 기술을 습득 하였다.

清朝政府는 外患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그 정책은 늦어졌다. 정책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856년 에로호 사건에서 비롯되는 제2차 아편전쟁에 패배한 때 부터이다. 61년, 清朝는 정부내에 외국관계를 처리할 기관인 「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설치하고, 동시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군사의 근대화를 꾀하였다. 會國藩, 李鴻章을 대표로 하는 「洋務派」의 이러한 개혁을 「洋務運動」이라고 부른다. 무기의 제조를 목적으로 南京, 上海 같은 곳에 官營工場이 만들어지고(65년의 金陵製造局, 江南製造局, 天津機器製造局따위), 해군창설과 軍艦建設(66년, 左宗棠, 福建船政局設立따위)도 하였다. 하지만, 이 양무운동은

1)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 拙稿 「中國における建築生産ツテムの變容と建築意匠の「傳統化」に關する研究 -1840~1977-」, 東京大學 建築學科 博士論文, 1987年, 東京
- 「第1次中國近代建築史研究討論會論文集」, 「華中建築」, 1987年 第2期, 武漢
- 「第2次中國近代建築史研究討論會論文集」, 「華中建築」, 1988年 第3期, 武漢
- 拙稿 「上海-都市ト諍枉, パルコ」 1991年, 東京
- 「第3次中國近代建築史研究討論會論文集」,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1年, 北京
- 徐蘇斌0 「比較 交往 啓示-中日近現代建築史之研究」, 天津大學建築系博 士論文, 1992年, 北京
- 賴德霖 「中國近代建築史研究」, 清華大學建築學院博士論文, 1992年, 北京

외국기술을 직접 도입하고자 하였고, 인재양성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적었다.

또, 당시의 위정자, 西太后는 해군 군사비를 유용하여, 1888년, 황폐해져 있던 願和園을 전통기술로 재건하였다. 1900년, 의화단사건때 파괴되었지만 다시 재건하였다. 여기에 관계했던 것은 內務府의 造營部門이었고, 北京이라고 하는 정치의 중심에서는 사상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強固하게 전통이 살아있었다. 이상이, 중국건축이 서양건축문화와 대면했던 때의 반응이었다.

租界는, 서양인을 위한 城砦이었지만, 동시에 중국인들도 보호하였다. 1856년부터 일어난 太平天國과 淸朝의 대립으로 내란이 일어났고, 중국인들은 上海租界안으로 피난하였다. 서양상인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중국인들이 살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里弄」주택은, 외관·평면 모두, 옛부터 있어 왔던 江南住宅을 계승한 것이지만, 대량으로, 집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찾을 수 있다. 이후 天津·漢口의 조계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 2) 제2기 : 1895년-1927년

1893년, 上海에서는 租界開設 50周年記念式이 열렸다. 이 기념식은, 물론, 50년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시대구분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조계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들에게는 上海의 「개척」, 아니면, 「건설」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에 오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라는, 자신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轉換期라고 인식되었다.

上海 「폴로니얼·엔지니어」의 대표였던, Kingsmill 밑에서 배웠던 A. B. Algar가 독립했던 것이 1896년이고, 또 한 사람의 제자인 B. Atkinson은, 上海工務局의 기술자 A. Dallas와 손잡고 1898년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들의 특색은, 앞서기의 Kingsmill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되어있던 上海를 거점으로하여 각지의 조계, 거류지의 건물설계를 의뢰받는 것이었다. Algar의 사무소에서는 杭州租界의 건설, 上海의 집합주택은 말할 것도 없이, 李鴻章邸宅과 같은 중국인의

주택을 설계하였다. 또, 후자의 Atkinson & Dallas 사무소는, 漢口, 北京, 天津에 지점을 가지고 동아시아 최대의 설계사무소가 되었다. 上海영국영사관이나 공장처럼 서양인 건축주를 위한 설계와 동시에, 北京의 大理院, 세인트루이스 萬國博覽會中國館 같이 淸朝政府로 부터 위탁받은 것도 있다.

이들 대규모사무소의 출현은, 1894년에 발발하여 다음해에 下關條約체결로 끝이 난 청일전쟁에 起因한다. 下關條約에서는, 그때까지 중국거류지에서 금지되어 있던 일본인들의 무역과 공장경영이 허락되어 다른 열강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순식간에, 上海를 비롯하여 각지의 거류지에서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건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905년이후, 상해에서 머무르고 있던 건축가의 수도 급증하였다. 서양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의 양식도 「폴로니얼·스타일」에서 벗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본국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는, 淸朝政府에 개혁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있었던 양무운동이 군사기술의 제조, 그것도, 「點」적인 개혁이었던 것에 반하여, 청일전쟁이후에는 교육제도, 외국인고용, 양식건축에 의한 관아건축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정부전체에서 적극적인 양화정책이 펼쳐졌다.

중국의 건축교육도 제도적으로는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1903년에 제정된 「奏定學堂章程」에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건축학의 대학과정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자의 수도 모자라 종이 위의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신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유학이었다. 많을 때에는 2만명 이상이었던 중국인 유학생중에서, 현재, 확인되어진 최초의 건축유학생은 1905년부터이며, 그후, 130명 정도의 유학생이 東京高等工業學校를 중심으로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유학생 그룹의 그후 소식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잠시 살펴본다면, 東京高等工業學校建築科를 1920년에 졸업한 柳士英(1893-1972)은, 상해의 일본인 건축

사무소인 岡野事務所를 거쳐서, 1922년에는 일본 유학 그룹인 劉敦楨, 王克生, 朱士圭와 같이 중국인으로서의 최초의 건축사무소인 「華海建築事務所」를 개설하였다. 또 다음 해인 1923년, 柳士英과 그들은 중국 최초의 근대건축교육기관인 蘇州工專建築科를 개교하였다. 교육내용은, 거의 日本東京高等工業學校建築學科의 것을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에서 중요한 또 다른 타입의 건축가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국내에서 토목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는, 通州師範學校測繪科 출신인 孫支廈(1882-1975)였다. 당시, 南通에서는 지방개혁의 旗手, 張勳의 밑에서 공장이나 병원, 학교, 그리고, 江蘇省諮議局 설계에 임하였다.

그 이전에는,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졌던 官衙建築이, 이 시기에 들어서서는 외국인건축가를 고용하여, 신식의 양풍건축으로 세우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재관소에 相當하는 북경의 大理院은, Atkinson & Dallas사무소에 맡겨졌고, 1910년 개교한 京師大學堂(北京)은 일본인건축가 眞水英夫가 설계하였고, 지방정부청사인 湖北省諮議局(1909)은 일본인 福井房一에 의한 것이었다.

1911년, 辛亥革命에 의해서 清朝는 멸망하고, 中華民國이 설립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각 도시에서 지방정부가 改組되어 市區改正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성벽의 철거, 도로정비 따위와 같이 기존도시의 개조였다.

이상과 같이 1895년은 중국내 각 租界에 在留하고 있던 서양인건축가에게도 또 중국건축계에도 시대의 획을 긋는 해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이전의 시대가 서양인건축가, 혹은, 토목기사들에 의한 「西洋建築移入期」였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서양인건축가에게는 「定住期」였다. 하지만, 중국인건축가에게는 교육을 외국에 의지하였고, 외국인에게는 변한 것은 없었다. 본격적인 건축가 탄생까지 있었던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이 시기를 특징지어 주는 것은, 외래자(서양인, 일본인들)에 의한 중국건축이해가 진전되어, 중국건축사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 뿐 아

니라, 그것을 건물에 응용하는, 이른바 「擬華風樣式」이 출현한 것이었다. 초기의 「擬華風」은 Atkinson설계의 上海 聖존즈대학懷施堂(1894)였다. 1920년 이후에는 H. K. Murphy에 의한 「중국건축의 부흥」이 미션·스쿨(金陵女子文理學院, 燕京大學)에서 채용되었다. 또 카톨릭교회에서 이 「擬華風樣式」이 채용된 적도 있다. 이것은 1900년에 발발한 義和團事件이 서양인선교사의 황포에 대한 반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회측이 중국인 회유책으로 중국양식을 채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伊東忠太와 뵤슈만 같은 외국인 건축사가들의 實地調査에 의한 건축사연구가 출현한 것은 이 시기 이후의 일이며, 외국인의 여행은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꽤 자유롭게 중국국내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1기 제국주의에 비해서 늦게 중국으로 왔던 독일, 러시아,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영토를 점령했던 것이 이 시기였다. 일본의 臺灣割讓(1895), 독일의 膠州灣(青島)租借(1898), 러시아의 旅順, 하얼빈租借(1898), 게다가 프랑스에 의한 廣州灣租借(1898), 영국에 의한 九龍租借(1898)가 이어졌다. 이들 각 지역에 제국주의국가들은 다투어서 최선의 건설기술과 건축스타일을 도입하였다. 이 지역들은 후에 일본점령하로 들어 가게되어, 대단히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 3) 제3기: 1927년-1945년

上海를 예로 든다면, 1920년 이후, 무역량도 건설량(양풍건축)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1918년에 끝난 제1차세계대전으로 피폐했던 서양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서 급증하여, 호경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上海의 앞玄關인 번드(bund)의 건물도, 이 때, 세번째로 옷을 갈아 입게 된다.

1927년, 장개석이 국민당을 장악하자, 중국국내도 한동안 안정되어 정부관계 건설도 활발해졌다. 上海를 선두로 마친루의 단계를 맞이하여, 도시문화의 성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인의 유학장소는, 우선, 일본이었고, 이어서 미국을

지향하였다. 일본유학그룹의 귀국은 1910년에 시작하였는데, 미국유학그룹은, 1920년대 중반 부터였다. 후자는, 전자를 배척하면서 「上海建築師學會」-후에 「中國建築師學會」로 발전한다. 을 조직하고, 자신들을 중국의 새로운 「아키텍트」라고 규정하였다. 1930년에 창간된 기관지 「中國建築」은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일본유학그룹은 대부분이 東京高等工業學校과 같은 기술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유학그룹과의 관계는 적었고,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제일의 도시, 上海의 건설업자들도, 「營造廠登記章程」(1928)의 시행을 받아들여, 1931년, 같은 업자조직인 「上海建築協會」를 설립하고, 기관지 「建築月刊」을 발간하였다.

일본유학그룹이 중국 최초의 근대적 건축교육 조직인 蘇州工專建築科를 개설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유학그룹도, 東北大學建築科(瀋陽, 1928), 北平大學藝術學院建築學科(北京, 1928)을 만들었고, 蘇州工專建築科가 발전 개조되어 만들어진 中央大學建築學科(南京, 1928)도 미국유학그룹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처럼 미국유학으로 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목표는 예술가로서 「아키텍트」의 표방이었고, 많은 설계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또 하나는 내쇼날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宮殿式」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1931년 이후 건설이 시작되는 南京首都計劃 중의 官廳建築(주로 基泰工程司설계), 같은 시기의 大上海都市計劃(董大酉설계)을 보면, 도시의 전체계획은 바로크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개개의 건축물은 紫禁城(北京)의 궁전으로 혼돈할 정도의 외관이였다. 중국적 외관과 구조, 기능의 서양화(혹은 「근대화」)는 그들이 미국인 건축가 Murphy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이 「궁전식」의 출현을 전후하여, 중국인자신에 의한 중국건축역사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1928년에는, 「名勝古蹟古物保存條例」(內政部)가 제정되었고, 1929년에는 北京에서 朱啓鈴이 중국건축사의 연구를 조직, 「中國營造學社」를 창설했다. 이 「中國營造學社」에는, 梁思成과 劉敦楨이 훗날 들어 가담하였고, 본격적인 실지조사,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때 까지 외국인들만이 해왔던 중

국건축역사를 중국인 손으로 되돌리고, 연구가 深化된 것은, 학술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自國의 건축역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발굴, 조직하고, 그것을 새로운 건설에 덧붙여 보자는 대단히 국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물론, 당시, 서양의 나라들에서 시작되었던 「모더니즘」이 중국에 전혀 들어 와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上海에 세워진 虹橋療養院(1934)는, 「빛과 공기」가 가득 찬 병원의 기능을 추구하여,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모더니즘의 하얀 상자가 채택되었다. 또, ڤ르뵈지에의 「빛나는 도시」의 번역은 1933년, 「Urbanisme」은 1936년에 번역되었다. 모더니즘을 도입할 목적으로 廣州에서 발간된 잡지, 「신건축」(1936년 창간)도 있었다. 南京·上海 같은 지역의 도시계획에서도 규모나 외관의 壯觀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도 고려하였다. 또, 上海, 南京에서는, 옛 시가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구획정리사업도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시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서양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양식(宮殿式 같은 것)을 보다 더 지향하였고, 정부의 지도력이나 경제기반의 약체, 일본의 침략도 저해요인이었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본격적인 도입, 사회의 관심은, 1945년 이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租界에서 定住한 서양인건축가들도, 중국인 「아키텍트」의 출현 보다 조금 일찍,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24년에는, 「중국의 건축가와 건설가를 위한 편람」이라는, 설계를 위한 매뉴얼이 上海에서 발간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중국조계에서 있었던 건축 붐에 맞춘 것이었다. 上海, 天津, 武漢, 廣東에서 소비 붐이 일어, 데파트, 호텔, 고급집합주택, 영화관같이 소비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이 늘어 섰다. 양식은, 「上海 아르데코·스타일」이라고도 불리우는, 서양의 「樣式主義」 다음에 오는 스타일이 차츰 유행하였다.

시대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기와 앞의 시대는 분명히, 중국건축계의 구조가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다. 서양인건축가들에게는 「번영의 시대」이며, 이를테면, 「上海

아키텍트」라고 불리우는 부류의, 번영에 취한 건축가를 키웠다. 단, 영국인 G. L. Wilson, 체코슬로바키아인 L. E. Hudec, Leonard & Veysere 사무소의 프랑스인 A. Leonard & P. Veysere 같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들 「上海 아키텍트」들은, 극히 소비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그들에게 중국은 어디까지나 세들어 사는 집이었고, 「租界」였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변화시켜 나가보자는 윤리적 목표는 없었다.

한편, 여기에서 새롭게 탄생, 단결한 중국인건축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성숙」의 단계로 진전을 보려고 하던 차에 일본이 침략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일본의 괴뢰정권으로서 발족된 滿洲國(1932)이나 식민지 臺灣의 도시계획, 건설활동도 이 시기 「성숙」의 단계를 맞고 있었다. 단, 上海가 중국인건축가, 건설청부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에 대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계획·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중국인이 주요영역에서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지는 않았다. 물량적인 축적(stock)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중급이하의 건축계 인재양성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이라는 2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인재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日本近代에서 「建築」의 變容<sup>2)</sup>

#### 1) 제1기 : 1859년-1879년

일본은 1854년 日美和親條約을 맺고, 1958년에 체결한 日美修好通商條約에 의해, 다음해인 1859년부터 神奈川(橫濱)을 개항하게 되었다. 橫濱, 神戶와 같은 거류지에서는, 중국의 조계와는 달리, 일본측에 의해서 개항되기는 하였지만, 거류지의 건설은, 서양인이 주도하여 시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 村松貞次郎 「日本近代建築技術史」, 彰國社, 1976年, 東京
- 稻垣榮三 「日本の近代建築-その成立過程」 (上) (下), 鹿島出版會, 1979年, 東京

여기에서 활약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上海로부터 왔던 「콜로니얼·엔지니어」, 「콜로니얼·아키텍트」들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J. Smedley(1841-1903)는, 神戶에서 교회를 세웠고, 東京에서는 카스미가세키의 러시아 공관을 설계했는데, 香港 → 神戶 → 橫濱 → 시드니 → 漢口 → 上海로 이동을 계속하였다. 長崎와 같은 곳의 콜로니얼·스타일의 주택에 손을 댄 바 있고, 東京銀座街의 企劃이기도 한 Waters도, 토목기술의 소유자였는데, 원래는 上海로부터 건너온 사람이었다.

1880년, 上海에서 있었던 上海共同租界의 수도 공사입찰에는, 上海의 Kingsmill, Morrison과 나란히, 神戶의 도시계획과 하수도공사를 맡은 바 있는 J. W. Hart,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T. J. Waters가 참여하였다. 이것은 이 시대의 중국과 일본의 건축계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기술자적 정신, 직능, 기술적 성격도 비슷하였다.

하지만, 일본측의 대응은, 중국과는 조금 달랐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세기 初頭에 일본주위에서 출몰하였던 외국선박에 대한 防備로서, 대포의 제조가 성행하였던 일이었다. 1830년대부터, 佐賀藩을 비롯하여, 幕府, 諸藩은 대포의 鑄造를 기획하고, 그 일을 위하여 製鐵高爐를 만들었다. 1850년 에는 佐賀藩에, 1852년에는 薩摩藩에, 그리고 1954년에는 伊豆菲山에 反射爐가 만들어졌다. 군비확장뿐만 아니라, 食산흥업정책-제철·조선·방적도 이 시기의 幕府, 佐賀藩, 薩摩藩에 의해 활발해졌다.

막말의 이러한 모든 食산흥업에서 수반되는 건설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의 양무운동과 마찬가지로 서양인 콜로니얼·엔지니어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長崎製鐵所(1861)은, 네덜란드인 機關師士官 헬데스가, 鹿兒島紡績所(1867)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Waters가 각각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幕末의 食산흥업정책은, 1868년 明治維新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로 발전하였다. 明治新政府는, 모든 藩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보다 더 많이, 외국으로부터 초빙

하였다.

한편, 거류지의 개항으로 일본인 전통적 건설 기술자도 변혁에 대한 대응을 서둘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나중에 대규모의 청부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清水組의 都邊手 清水喜助였다. 幕末의 橫濱居留地의 많은 건축물을 비롯하여, 築地호텔(1863), 三井組 하우스(1872), 爲換 三井組(1874) 처럼, 목조이면서 洋風을 모방한 이른바 「擬洋風」의 대규모건축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청부맡았다.

明治維新 이후에도, 건축의 수요는 커져서 고용된 외국인들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위의 清水組는 물론이고, 營繕部門에 江戸幕府에서 일하던 기술자들 — 林忠恕·立川知方·朝倉清一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 2) 제2기 : 1879년-1911년

明治新政府의 목표는 외국인기사의 기술로 일본의 식산흥업화를 꾀하는 일이었으며, 게다가 선진국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일본에 移植하는 것도 과제였다. 1871년 工部省내에 工學寮로서 발족하였던 일본인 건축기술자 양성 기관은, 1877년 공부대학으로 개칭되었으며, 새롭게 Condor 교수를 보강하여 1879년에 조가학과의 제1회 졸업생 4명을 배출하였다. 辰野金吾를 필두로 하는 일본인 건축가들은 졸업하자 바로 설계활동, 교육활동에 종사하여, 그때까지 있었던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들과의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工部大學校 造家學科에서 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들은, 서양의 樣式主義建築을 모방하는데에 제1의 목표를 두었다. 예를 들어, 辰野金吾의 대표적 작품은 네오·르네상스양식의 일본은행(1896)였는데,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구미각국을 둘러보고, 調査參觀하였다. 1906년, 같은 工部大學校 造家學科 제1회 졸업생인 片山東熊의 설계로 완성된 赤坂籬宮은, 이러한 歐美樣式主義에 대한 학습모방의 도달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國威를 안팎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官廳集中計劃이었다. 독일인 건축가 Ende & Böckmann 사무소에 의한 최초의 계획(1886)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일본건축과의 질충안이었는데, 일본인건축가들로부터 불평을 샀다. 다음해에 나온 수정안에서는 장대한 네오·바로크양식을 채용하였는데, 실행되지는 못했다. 歐美를 따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일본인 건축가들에게 당시의 일본 社寺 따위의 전통건축은 없애 버려야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工部大學校에서 일본건축사를 시작하였던 것은 江戸時代의 工匠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規矩術에 대한 강의를 하였던 木子清敬(1844-1907)이었다. 본격적인 연구는 伊東忠太의 「法隆寺建築論」(1893)으로 부터 시작되어, 關野貞(1867-1935)로 이어졌다. 그들의 연구는, 1897년 제정된 「古社寺保存法」에 의해서 촉진되었고, 계속해서 중국, 한반도로 확대되어 갔다. 그들의 연구는, 學術性이 높은 것이었으며, 동시에, 日清, 日露戰爭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시기에, 구미의 기술과 양식에 대해서 학습하기를 다 마쳤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에게 독자적인 「建築의 進化」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10년, 議院建築(國會議事堂)의 건설계획을 계기로, 건축학회에서 「우리나라 장래의 건축양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건축양식의 창출을 바란다고 하는 결론은 내려졌지만, 의원건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것을 계기로, 明治神宮寶物殿(1915), 日清生命保險會社(1916)의 설계경기가 열려, 社殿과의 조화를 꾀하여 고유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 세워졌으나, 1911년, 시대가 大正으로 바뀌자,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 이 「국민적 양식」에 대한 요망은 발전하지 못 하고, 할 수 없이 퇴장하고 말았다.

1897년, 工部大學校의 제1회 졸업생에 의해서 「공학회」가 조직되었고, 1881년 부터는 기관지 「工學雜誌」가 간행되었다. 이후, 전문별로 학회가 조직되어, 1886년에는 「造家學會(1897년에 「建築學會」로 改稱)」가 성립되었다. 다음해인 1887년에는 기관지 「建築雜誌」가 출판되기 시작했다. 1891년 10월, 濃尾地震이 일어나자, 이것을 계기로 건축가들은 벽돌조의 脆弱性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가학회를 중심으로 벽돌조의 개량, 철골조의 도입, 철근콘크리트의 도입이

급격한 추세로 이루어졌다. 1906년에는, 工部大學校가 개편된 工科大學에서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또, 三井物産 橫浜支店(1911)은 철근콘크리트조, 三井貸事務所(1912)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사용된 이른 시기의 예이다.

1885년 工部省이 폐지되고, 官廳建築은 1886년에 설치된 臨時建築局이 맡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회사에 청부주기로 하고, 1887년 「일본토목회사」를 설립하였다. 후에, 오늘날의 大倉組로 발전하는 이 일본토목회사는 관청건축의 토목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독점하기 위하여 대학의 學士를 고용하여, 기술력을 가진 종합건설업자의 처음이 되었다. 또, 明治初期부터 있어 왔던 清水組는, 1891년 영업규정을 개정하여, 기술력을 향상시켰고, 大林組도 1892년에 창설되어, 明治末期까지 급속한 발전을 보았다.

한편, 1893년의 臺灣割讓, 그리고 大韓帝國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1906년 「統監府」설치 이후), 중국조계로 대규모진출과 일본의 해외침략, 진출에 따라, 일본인 건축가들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었다. 침략의 앞잡이(臺灣, 韓半島로 간 사람들)이나 고용된 외국인(眞水英夫, 福井房一 같은 사람들)으로,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 건축가의 의식, 목표, 기술은 일본에 남아 있던 건축가들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토목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지점을 해외에 두고, 軍事工事, 鐵道工事, 軍需工場의 건설을 청부 맡아 급격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각 지역의 現地建築家, 土木建設業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 3) 제3기 : 1911년-1945년

1911년, 시대는, 「明治」에서 「大正」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히, 「天皇의 交替」만이 아니라, 사회를 뒤덮고 있던 의식의 변혁을 촉진시켰다. 잔뜩 찌푸려 무겁던 공기가 단숨에 걷히고, 맑아졌으며, 해방감에 찬 의식이 사회에 가득하였다. 「大正모더니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건축계도 앞의 시대로부터 다음 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양의 歷史主義建築을 모방하던 시기는 끝났다는 의식이 일기 시작했을 때, 구미의 나라들에서는 「近代建築運動(모더니즘)」이 勃興하였고, 일본의 건축가들은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미, 19세기말, 유럽에서는 아르 누보, 세체손이 일어났는데, 일본에는 大正時代에 들어서 속속 소개되었다. 일본의 건축가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보다도 거기에서 나온 결과만을 배우려고 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앞 시대에 있었던, 서양의 양식주의를 받아 들이는 「학습적, 심취에 대한 반항, 「합리주의」라고 하는 보편성에 기초를 두고서 건축을 창작한다고 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그 태도는 어처구니 없게도 역시, 앞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수법을 「학습」한 것이었다.

後藤慶二(1883-1919)를 돌과구로 하여, 계속해서 열린 전람회를 계기로, 分離派가 등장했다. 유럽의 표현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은 그들은, 계속해서 장식을 제거한 「모더니즘」을 양식으로서 받아들였다. 공간과 평면을 구성해서 창조하고자 하는 태도로서 「모더니즘」은, 꼬르부지에한테서 배웠던 前川國男의 東京帝室博物館懸賞設計案(1931), 坂倉準三의 파리萬國博覽會日本館(1937)의 출현을 낳았다.

한편, 1930년대에, 동양풍, 일본풍의 외관을 한 절충적인, 소위 「帝冠樣式」이 현상설계의 용모규정에 명시되어, 일본까지, 그리고, 식민지와 만주국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단, 丹下健三가 설계하였던 在盤谷(방곡) 日本文化會館懸賞設計1等當選案(1943), 大東亞建設記念營造物懸賞設計1等案(1942)은, 외관은 日本式(和風)이지만, 정신은 前川國男나 坂倉準三이 취했던 태도와 같은 「모더니즘」의 연장이었다. 이 시기, 일본식(和風)주택에 「모더니즘」을 적용하는 수법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건축가들이, 지나간 시대와 결별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사회에 대한 관심,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었다. 영국에서는, Haward가 「내일의 전원도시」를 펴낸 것이 1902년이었다. 노동자주택을 사회정책으로서 건설하



는 움직임도 19세기말에 유럽의 각 나라에서 생겨났다. 일본에서도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가 사회문제화되어 그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최종적으로는 「市街地建築物法(1919)」, 「都市計劃法(1919)」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쳤다. 1923년 9월에 關東地方을 급습했던 지진으로, 帝都復興이 급선무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區劃整理事業이었는데, 일반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아니었다.

단지, 1924년에 발족한 同潤會는, 供給戶數의 면에서 본다면 보잘 것 없었지만, 플래닝과 같은 설계상의 문제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했었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戰時的 統制經濟에 의해서 나타났다. 住宅營團(1941)의 발족이 바로 그것이며, 또, 中國大同都市計劃(1940)과 같이, 외지의 도시계획에서 시험적으로 시도해보는 데에서 그쳤다.

#### 4. 中國·日本近代建築과 韓國近代建築

##### 1) 中國·日本近代建築의 差異

이상, 중국과 일본의 근대건축의 발자취를 훑어 보았다. 각각의 발자취를 나열하여 표로 만들면, 이 글의 뒤에 첨부한 도표와 같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근대건축사를 비교하여 알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일 것이다.

① 서양의 건축문명과 마땅뜨렸을 때, 최초의 대응은 같았다. 그 어느 쪽도, 초기의 건축활동을 받쳐주었던 것은 서양인 「폴로니얼 아키텍트」, 「폴로니얼·엔지니어」들이었고, 전통적 건설기술자들이, 접촉을 계속하여 왔던 외래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정부의 대응은, 두 나라 모두 官營 軍事工場, 造船所, 製鐵所부터 시작하여, 서양인 「폴로니얼·엔지니어들」을 고용하여 軍備增強, 殖産興業에 힘을 쏟았다.

② 일본은, 단 20년에 끝낼 수 있었던 제1기에, 중국은 50년을 사용하였고, 또, 이러한 현상은 제2기에도 연장되었다. 이미, 일본이 독자의 「건축가」를 배출하고, 「서양학습」을 끝냈다고 의식하게 된 제2기, 30년간 동안과 거의 같은 일들을, 중국은 1927년 이후인 제3기에서 시작하였는

데, 그나마도, 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영국을 필두로 서양 열강들의 중국침식이 빠르기도 하였고, 과격하였던 일이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경험을 거울 삼을 수 있었고, 서양열강으로 하여금 일본을 탐내게 하는 매력이 그다지 풍부했던 나라이지는 않았다. 반대로, 일본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중국침략에 가담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비교적 안정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1927년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정권도 성숙할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日中戰爭에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強固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殖産興業, 都市整備, 住宅과 같은 사회자본의 정비는,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중국의 내적인 요인으로, 변화를 꺼려하는 문화체질 때문이다. 극히, 文明論的으로 말하자면, 古來부터 學習을 반복하였던 일본은 외래의 앞선 문명을 조직적으로 섭취하는 것에 뛰어나 있었다. 한편, 중국은 20세기 初頭까지, 전통적 기술자들에 의해 전통적 모습의 궁전이 계속해서 재건되어,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강한 思慕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이상과 같은 결과로, 중국에서는 외국인 건축가, 외국건설산업이 계속해서 크게 뿌리를 뻗고 있었다. 또, 중국의 경우, 국내 건축교육의 발달이 늦어져서 일본,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건축인구의 층도 얇고, 留學地에 따른 대립이 계속되어, 커져버린 국내 건축계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 제3기에 출현한 중국인 건축가들은, 주로 미국 유학경험자(유난히, 아메리칸·보자르의 영향이 큼)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아키텍트」로서 직능의 확립, 「중국적 건축」의 추구였다. 일본은, 예술과 기술의 合體로서, 건축이 인식되어 있었지만, 耐震構造와 같은 구조적인 면도 重視하였다.

樣式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일본적 건축」이 추구되었지만, 건축계의 주류는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이 서양이야말로 「근대」, 「보편」, 「합리적」이라고 간주하여, 그대로 도입, 학습, 추구하고 했던 것에 대하여, 중국은 「서양의 근대」가

어디까지나 보편적 근대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내부로부터 나온 「중국의 근대」를 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④ 일본의 제3기에 많이 나타났던 건축가의 사회에 대한 관심, 도시정비, 주택의 대량공급 따위가, 중국에서는 1949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 2) 韓國近代에서 「建築」의 變容<sup>3)</sup>

한국은 근대건축을, 중국·일본과 같은 시각에서 시대구분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 27集, 서울
- 尹一柱 「韓國 洋式建築80年史(解放前篇)」, 治庭文化社, 1966年, 서울
- 尹一柱 「韓國現代美術史(建築篇)」, 國立現代美術館, 1978年, 서울
-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의 生成過程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建築工學科 碩士論文, 1982年, 서울
- 金泰中 「舊韓末度支府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建築工學科碩士論文, 1982年
- 權錫奉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一潮閣, 1986年, 서울
- 韓在洙 「韓國建築史學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漢陽大學校建築工學科 博士論文, 1987年, 서울
- 金鴻植 「民族建築論」, 한길社, 1987年, 서울
- 故尹一柱教授論文集編纂會編 「韓國近代建築史研究」, 技文堂, 1988年, 서울
- 金蘭基 「韓國近代過程의 建築制度와 匠人活動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建築工學科博士論文, 1989年, 서울
- 李光麟 「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 同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89年, 서울
- 金泰永 「韓國開港期外人館의 建築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建築 學科博士論文, 1990年, 서울
-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建築工學科博士論文, 1990年, 서울
- 金昱成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韓國建築界形成期의 性格에 관한 研究」, 明知大學校建築工學科碩士論文, 1991年
- 徐飛鵬 外 「中國近代建築總覽-青島編」,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2年, 北京
- 梁尚湖 「20世紀前半期 韓國의 建築教育에 관한 實證의 考察」, 『建築歷史研究』 1-1, 韓國建築歷史學會, 1992年, 서울

## ① 제1기 : 1876년-1905년

일본은 서양 모든 나라들로 강요 받았던 것을 보다 強烈하게 하여, 한국에 개항할 것을 재촉하였다. 韓國의 朝鮮王朝가 1876년 「日韓修好條約」으로 부산을 할 수없이 개항하자, 西洋列強, 그리고 朝鮮王朝의 宗主國, 淸政府도 비슷한 조약을 맺어, 거류지를 설치하고 있었다. 元山(1878), 仁川(1883), 漢城(1882)과 같은 곳이 계속해서 개방되었는데, 居留地形成의 방식은, 上海와 비슷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인천은 海岸을 따라서 「BUND」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영국이 싱가포르에서부터 길러 온 거류지건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인천을 시작으로 하여, 漢城에서 洋館을 세웠던 사람들은 중국의 거류지와도 관계가 깊다. 인천의 영국영사관은, 上海를 根據地로 하여 東아시아 全域의 영국공관을 관리하던 營繕部(R. C. Boyce)의 설계이었다. 덕수궁 석조전은 상해의 商社에 와 있던 Harding의 설계, 인천의 James Johnston邸宅을 설계한 독일인 Curt Rothkegel은 1908년에 靑島에서 新敎教堂을 설계한 바 있다. 서울에서 많은 洋館을 설계하였던 Sabatin도 상해를 비롯한 중국의 조계를 통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다른 점은, 條約에 근거한 淸國租界의 존재이다. 보통, 東南아시아에 있는, 소위 영국인의 海峽植民地에는 영국인거류지 가까운 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다. 중국 국내에서도, 거류지는 중국인거리에 근접해서 만들어져 서양인 사회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산업을 형성하였다. 橫濱, 神戶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었지만, 인천과 같은 한국내의 거류지에서는 그것이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 조약의 有無가 都市形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존재는 큰 것이었다.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유래했을 것이다.

두번째 특색은, 일본거류지의 존재이다. 중국

에 대한 일본인의 침입행위는 1895년의 下關係約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경우는 이보다 빠르다. 제1회 工部大學校 造家學科 卒業生 4명이 졸업했던 것은 1879년이었으므로, 거류지의 구획나누기는 물론이고, 영사관 같은 공공건물도 大倉組와 같은 일본의 청부업자가 진출하여 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최초의 근대일본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은, 片山東熊설계의 北京公使館(1886)이고, 한국의 경우, 1904년 준공한 渡邊讓설계의 釜山商品陳列所가 최초의 예일 것이다.

세번째 특색은, 樣式的인 多樣性이다. 시대적으로, 이미 동아시아의 거류지에는 콜로니얼樣式을 끝내고, 본국의 유행을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반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세계정세의 복잡함의 증거일 수도 있을 것이다. 洋館을 세웠던 서양인들 중에, 宣教師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上海와 橫濱에 비교해서 건설양이 적고, 전문 「콜로니얼 아키텍트」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 서양인이 설계한 건물을 한국인이 시공하여, 기술력을 키워 나갔던 것은, 한국도 중국, 일본의 同時期와 같았다. 특히, 저명한 인물은 沈宜錫(1859-1927)으로, 培材學堂(1887)을 시작으로, 獨立門(1897)의 시공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시기에, 工匠으로부터 綜合建設業이 육성되어 왔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萌芽期에 일본의 건설업이 침입하여 싹을 뽑아 버리고 말았다.

朝鮮朝政府는, 1876년 개항한 직후, 1881년,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軍備充實과 植産興業, 그리고 유학생파견, 교육을 시도하였다. 우선, 시도하였던 것은 일본에 視察團, 紳士遊覽團을 파견한 것이고, 이웃나라의 변화를 보고, 변혁의 필요성을 감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淸國天津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天津機器局에서 軍事産業을 학습하였다. 이들의 성과는 軍事工場-翻沙廠(1884), 造幣局-典環0局(1886, 1892)의 건설, 근대건축교육의 先驅, 商工學校工科(1889)를 설치하여 구체화하였다. 이 「統理機務衙門」의 기구내에 「軍物司」, 「機械司」, 「船艦司」 그리고,

이들이 機構改革되어서 생긴 「監工司」가 이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건물들의 설계는 외국인에게 맡겨졌는데, 이러한일은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마찬가지였다. 또, 학교 교육이 본격화하는 것은, 조금 훗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이른바 「갑오개혁」이 단행되어, 행정 개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度支府 따위와 나란히, 工務衙門이 설치되어, 그 밑에 建設局(1894. 6. 28~1895. 3. 25)이 생겼다. 이 즈음에 機構改革은 激甚하여,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工務衙門建築局이 없어진 후에는, 외국인 관리하에 있었던 海關燈臺局(1893-1904)이 정부의 洋風建築의 건설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왕실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는 宮內府에는 濟用院營繕司(1895. 4. 2. -1907?)가 있어, 宮殿關係의 傳統建築의 수리를 맡았다.

일본인에 의한 閔妃虐殺 다음 해인 1896년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그 근처에 있던 慶運宮을 개축하기 시작했다. 그 개축은 傳統的의 宮殿의 再建과 新式洋館의 建設이었다. 전통적 궁전의 재건에는 「營建都監」, 「重建都監」의 臨時建築局이 설치되어, 度支府의 官吏나 宮內府 濟用院 營繕司의 匠人이 동원되었다. 한편, 洋館은, 석조전의 설계자인 Harding만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양식적으로 본다면, 모두 다 베란다·콜로니얼이었고, 中國沿海部 租界에 있는 西洋人建築家의 손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기념비적 건물은, 沈宜錫이 설계한 圓丘壇(1901), 紀念碑閣(1902) 같은 것이 전통적인 기술과 스타일로 만들어져,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여, 오히려 淸國政府의 건설활동과 비슷했다.

이 시기의 한국 건축계의 반응을 총괄해 보면, 중국, 일본의 제1기와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朝鮮王朝政府도 改革의 必要性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 改革案도 完備하고 있었다. 단, 한국의 건축계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서, 살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強靱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한국의 建築界가 가지고 있던 「명예」는, 그들의 강한 「전통」만이 아니라, 중국

의 건축문화도 있었다. 중국, 일본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기로에 한국 건축계는 서 있었다.

### ②제2기 : 1906년-1919년

日露戰爭을 계기로 일본은, 다시, 이웃나라에 깊게 관여하였다. 1905년에는, 「乙巳保護條約」을 강요하고, 다음 해에는, 「統監府」(1906. 2)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한국의 건축계도, 어쩔 수 없이 변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일본은 세관관계공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海關燈臺局稅關工事部(1905. 12/1907. 12에 臨時稅關工事部로 改編), 1906년에는 度支府에 建築所(1906. 9. 20)가 설치하였다. 이 度支府建築所는, 1908년8월, 臨時稅關工事部를 흡수하였고, 일본이 한국에 「日韓併合條約」을 강요하여 總督府가 창설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度支府建築所는 이 시기의 公共建築을 거의 獨占하였다.

이 度支府建築所는 일본에서 1886년에 창설되었던 大藏省臨時建築局과 人的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 顧問, 囑託을 맞아들었다. 總督府가 성립하고 그 속에 官房土木局營繕課로 바뀌어도 아마, 그 관계가 깊었을테지만, 필자에게는 아직 史料가 없어서 추측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단, 이 시기의 在韓日本人建築家の 層이 얇아, 대규모의 설계는, 日本在住의 건축가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1893년에, 일본에 割讓되었던 臺灣, 1905년에 러시아로 부터 앗아 온 旅順이 있어, 이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는 늘어났고, 식민지 사이를 오가며 설계활동하는 사람도 생겨 났다.

일본인 건축가의 설계활동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건축가의 성장은 크게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1907년, 農工商部는 工業傳習所를 만들어, 中等교육을 시작하였지만, 효과적인 결과가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 ③제3기 : 1919년-1945년

1922년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던 건축관계자들이 모여서, 조선건축학회를 설립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축가가 증가하였고, 定住化하

였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속에는 한국 인회원의 이름도 보이고, 해마다 증가해 가고 있었다. 1916년에 개설되었던 경성고등공업학교건축과의 한국인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한 것과는 관계가 있다. 1916년경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중등공업교육을 위한 학교도 때를 같이 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에 부임한 새 總督, 齊藤實이 표방한 「文化政治」가 앞 시대의 「武斷政治」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 없이, 지배를 교묘하게 했을 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22년의 조선건축학회의 설립, 일본인 건축가의 정주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文化政治」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인 上層 부르조아지를 구슬러 일정한 범위에서는 성장을 허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1919년, 京城高等工業學校建築學科의 제1회 졸업생인 朴吉龍(1899-1943), 다음 해의 朴東鎮(1899-) 같은 사람들은, 총독부 건축과에 소속한 후, 독립하여 사무소를 열었다(朴吉龍은 1832년, 朴東鎮은 1938년에 독립). 그들의 건축주는 대부분이 「文化政治」에서 생겨난 韓國人 上層 부르조아지였다. 또, 商品化 住宅으로서 서민에게 친근해진 「改良傳統住宅」의 출현은 1920년 부터이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에 呼應하였다.

1945년의 일본의 無條件降伏까지, 한국건축계의 일본인건축가에 대한 종속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시대를 구분한다면, 한국인 건축가들이 탄생하는 1919년이 시대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일본이나 중국의 자국 건축가들이 탄생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설계(東京, 南京의 관청건축마외)에 종사하였고, 훈련을 쌓아 나아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한국인 건축가가 생겨났을 때에는, 이미 이 나라에는 度支府의 일본인 건축가들에 의해서 필요한 건축물은 거의 건설되어 있었다.

또, 일본에서, 중국에서, 自國建築家의 탄생과 함께 自國建築史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미 언급했다시피 단순히 학문적인 작은 흥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서양건축을 도입했을 때, 한쪽 편에서 가졌던 對抗意識, 건축에서 내

셔널 아이덴티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출현은, 일본의 「제국양식」, 그리고, 모더니즘 속에 「일본」을 투영하는 방법, 중국의 「궁전식」처럼 서로 다른 점은 있었지만, 건축가의 탄생 후,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연구가 일본인 건축사가들에게 독점되었고,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건축에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945년 이후, 한국 건축계에서, 이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강력하게 주장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5. 맺는말과 課題

이상, 중국과 일본의 근대건축을 概觀하고, 비교하면서, 한국과 같고, 다른 점을 기술하였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이제부터의 과제를 적어 보고자 한다.

1) 여기에서, 일본건축계의 세 단계를, 임시로, 명칭을 붙여 본다면,

①제1기: 西洋建築文化에 接觸하는 時期

②제2기: 西洋建築文化에 대한 學習期(建築家の 誕生)

③제3기: 自立期가 된다. 여기에서 예로 들었던 東아시아 3국 뿐만 아니라, 非西洋社會의 建築界가 西洋建築界와 마주쳤을 때, 위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단, 중국, 한국처럼 西洋列強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에서는, 일본의 제2기에 해당하는 싹이 일찍 뽑혀버려서, 제3기인 自立期까지 도달하는데에는, 국가가 독립한 이후인 1945년 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중국, 한국의 제3기는, 각 나라의 「건축가」탄생을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하였는데, 중국, 한국의 제2기에는, 조제의 존재, 식민지화 되어 있었기때문에, 外來者의 건축활동만이 활발하였다. 자국「건축가」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돌아서 가는 길(迂路) 밖에 없었다.

한편, 여기에서 예로 들었던 日本近代建築의 발자취는 「優等生」이었기 때문에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犧牲 위에, 그것

으로 부터 막대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3기로 올라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의한 외적 요인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外來文明에 대한 傳統的 受容態度, 「建築」에 대한 傳統的 觀點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內的要因도, 이들 3국이 근대에서 건축의 움직임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냈던 원인처럼 생각된다. 일본이 서양건축을 빠르게 학습한 것은, 거기에서 「進歩」와 「普遍性」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西洋의 進歩」라고 간주하고, 「中國의 進歩」의 발전을 希求하였다. 한국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용태도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지금부터도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중국건축계의 성격을 「고루하다」, 「뒤떨어졌다」라 하고, 일방적으로 일본건축계의 성격을 「진보적」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지금까지 언급하면서 전체의 논리를 뒤집는 것 같이 되겠으나, 우리들의 「건축의 근대」는, 단지 「학습」이었던 것일까? 자문자답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설령 「학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 3국의 건축계는, 이미, 「학습」을 끝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버려진채로 지내온 것, 폐기하고 지내 온 것들이, 과연, 필요없는 것이었을까,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보아야할 것이다. 혹은, 버리려고 해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의 건축계 구조와 그 이후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근대건축」의 어떤 시기 이후는, 「침략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다. 日本, 香港, 臺灣은 남아 있는 遺構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존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맨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도태되어, 「근대건축」은, 이제, 경제발전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강열하게 일본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져, 보존보다

는, 이전이나 철거가 많다. 나라들 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건축의 「근대」가 없어지고 있다. 하

지만, 그것도 그 나라의 건축계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中國·日本近代建築年表

	中 國	日 本
제 1 기	1842년-1895년 • 서양인 콜로니얼·아키텍트 콜로니얼·엔지니어 (콜로니얼기술/콜로니얼·스타일)  • 傳統技術者의 變容→擬洋風出現 • 洋務運動에 의한 軍事工場, 官營工場 出現 • 傳統官殿의 再現/「里弄」의 出現	1859년-1879년 • 서양인 콜로니얼·아키텍트 콜로니얼·엔지니어 (콜로니얼기술/콜로니얼·스타일) • 幕末·明治初期의 軍事技術, 殖産興業 • 傳統建築技術者의 變容 • 擬洋風
제 2 기	1895년-1927년 • 西洋人建築家의 定著/本國樣式의 模倣 • 教育制度의 準備/中國最初の 近代建築教育(蘇州工專) • 日本留學 •  고용된 外國人 建築家 • 鐵骨造, 콘크리트造의 導入(外國人에 의 함) • 擬華風建築(外國人에 의한 中國趣味建築) • 帝國主義의 各地侵略	1879년-1911년 • 工部大學造家學科卒業生誕生 • 西洋樣式主義建築 學習完了 • 官廳集中計劃과 外國人에 의한 日本趣味 建築 • 日本建築史의 研究와 「國民的 樣式」論議 • 벽돌의 改良, 鐵骨造·콘크리트조의 導入(日本人이 함) • 綜合請負業者의 誕生과 發展 • 建築家·建設業의 海外侵略, 進出
제 3 기	1927년-1945년 • 中國人 「아키텍트」의 出現/建築教育의 充實 • 綜合請負業의 誕生과 發展 • 都市計劃(南京, 上海)과 「官殿式」建築 • 古建築의 研究開始 • 모더니즘 紹介 • 西洋人建築家의 增加와 成熟 • 消費的아르·데코建築 • 本格的인 日本의 中國侵略	1911년-1945년 • 表現主義, 分離派, 모더니즘, 帝冠樣式 • 建築家의 社會에 대한 關心→「市街地建築特法」, 「都市計劃法」 • 帝都復興事業→區劃整理事業 • 同潤會, 住宅營團, 外地의 都市計劃→住宅의 大量供給 • 植民地에서 建築活動

## 東アジア近代における建築の變容 —中・韓・日の比較を通して—

Muramtsu, Shin

(Tokyo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要 約

本論文は、これまで、個々に進められてきた中國、韓國、日本の近代建築史研究を有機的に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新たな展望を獲得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ここでは特に比較の指標として、建築行爲を担う「建築家」に焦点をあてた。

これら東アジアに位置する三ヶ國は、歐米の建築文明を受容することから建築の近代化を開始した。以來、日本の敗戦までの約100年弱のこれら三ヶ國の建築の歴史は、三期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第一期では、西洋人の土木技師、測量技師、建築家などの渡來・活動を経て、まず、現地の傳統技術者が西洋人の補助活動を通じて、西洋建築技術を習得していった(西洋建築文化との接觸期)。第二期には、近代建築教育の導入を通じて生まれたそれぞれの國の建築家たちが、國家規模の建設を担いながら成長していく。みずからの建築の傳統を「發見」するものもこの時期である(西洋建築文化の學習期-建築家の誕生)。第三期は、都市化、工業化で生じた種々の問題を、輸入ではなく自らの思考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いう時期であった(自立期)。

ただ、以上は、日本をデラルとした區分である。日本の植民地となった韓國は、第一期は同心ような動きをとるものの、自らの建築家の成長を積極的に促す機会を失ってしまった。韓國や中國が、自らの手によって、建築家を教育し、ナショナリズムの強い建築様式を議論するのは、戦後になってからであった。

以上、いくつかの相違点はあったものの、世界の建築の流れを見たときに、これら三ヶ國の建築の歴史は、きわめて近似した動きを取っている。單なる西洋との比較ではなく、傳統を共有したこれらの國々の建築の歴史をさらにつめて考究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なお、この論文は、平成4年度「日本學術振興會特定國派遣(韓國)」助成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ソウル大學での研究期間、李光魯教授、及び、多くの方々にお世話になった。また、この論文の韓國語翻譯には、成均館大學尹仁石先生のお手を煩わすこととなった。ここに感謝する次第である。